

01

냉전기 중국의 대소련 동맹딜레마와 군사 행태*

朴 鴻 緒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교수

hongseo@hanmail.net

-
- I. 서 론
 - II. 동맹간 결박-방기 딜레마
 - III. 중국의 대소련 동맹 딜레마와 군사 행태
 - IV. 결 론
-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9-351-B00141). 본 논문에 귀중한 논평을 주신 심사위원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대소련 동맹딜레마 논리를 통해 1949년 국가수립 이후 1960년대 중소분쟁시기까지 발생하였던 중국의 대외적 군사행태를 분석하는 것이다. 동 시기 중국은 한국전쟁, 타이완해협위기, 중인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에 군사적으로 연루되었다. 이를 통해 중국은 미소 양국과 각각 '적대게임'과 '동맹게임'을 수행하였다. 특히, 중국이 미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동맹국 소련으로부터의 지원은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대소련 동맹관계는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이론적으로, 동맹간에는 결박-방기 딜레마가 존재한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소련에 의해 원치 않는 분쟁에 결박당하는 상황과 아울러 소련에 의해 방기되는 상황 모두를 차단해야 할 합리성이 존재했다. 한국전쟁기 중국의 참전결정은 미국의 위협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향후 소련으로부터 국가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에 기반하였다. 반면, 흐루쇼프 집권 이후 미소관계가 증진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타이완해협 위기와 중인전쟁을 이용해 소련을 결박시키려는 행태를 보였다. 반면, 베트남전에 대한 중국의 제한적 개입은 소련이 한국전쟁처럼 베트남전쟁을 이용해 중국을 결박시키려는 행태에 대한 거부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핵심용어 : 중소동맹, 중미관계, 동맹딜레마, 중국의 군사개입, 한국전쟁, 타이완해협 위기, 중인전쟁, 베트남전쟁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전쟁 이후 베트남전쟁까지 중국이 감행한 군사적 행동의 변화를 중소동맹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중국은 1950년 10월 ‘항미원조보가위국(抗美援朝保家衛國)’의 명분하에 한국전쟁에 전면적인 군사개입을 감행하였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중국 인민지원군의 연인원 파병 규모는 최소 2백만에서 최대 5백만까지 추산되고 있으며, 특히 전투병 이외에도 60여만명의 중국인 민간인들까지 후방지원에 나서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군사개입은 결국 중국군의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중국군의 사상자 및 부상자는 최소 36만명에서 최대 90만명까지 추정되며, 이외에도 기아 및 혹한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주지안룡 2005, 23-24; 沈志華 2001, 273-274).

이에 비해 베트남전기 중국의 군사개입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1965년 6월 북베트남에 대한 군사파병이 개시된 이후 1969년까지 32만여명의 방공포병 및 공병이 북베트남에 대한 군사지원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파병규모뿐만 아니라 중국군은 한국전쟁기와는 달리 북베트남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에 머물렀다. 그로 인한 중국군의 피해규모도 전사자 천여명을 포함해 수천명 선으로 한국전쟁기에 비하면 ‘약소’하였다(유인선 2012, 389-390; Eugene Register-Guard 1979).

한국전에 비해 베트남전에 대한 중국의 대응수준은 왜 약화되었는가? 한반도와 베트남이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국과 ‘순망치한(唇亡齒寒)’의 관계라면, 양 지역의 안보위기는 모두 중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周恩來 1950; Gurtov and Hwang 1980, 160).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전쟁시기 전면적 군사개입과 달리 베트남전에서는 제한적인 군사원조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한 기존의 분석들은 주로 그 원인을 중국, 미국, 그리고 소

런 사이의 관계변화로부터 탐색한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기에 비해 베트남전쟁기 중미간 의사소통이 강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이 중국의 요구에 부응해 17도선을 월경하지 않음으로써 중국의 전면적 군사개입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李丹慧 2001; 章百家 2005, 14). 아울러 중소관계의 변화 역시 중국의 대응수준을 결정한 중요 요인으로 간주된다. 즉, 중국은 중소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속에서 베트남전을 이용해 세력을 확대하려는 소련의 의도를 경계하였으며, 실제로 베트남과 소련의 긴밀한 관계증진으로 인해 중국의 대베트남 군사지원이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Khoo 2011; 李丹慧 2000). 또한, 베트남전기 중국의 대응행태를 국내정치적 차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인민해방군을 동원해 문화대혁명을 추동하려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전략적 입장에서는 미중간 전면전을 초래할 수도 있는 베트남에 대한 전면적 군사개입을 감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Gurtov and Hwang 1980, 163-164; Chen 1995, 364).

그러나, 미국과의 의사소통 강화는 중국의 군사행태 변화를 초래한 직접적 원인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맥락에서 가능했는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소련과의 관계 악화도 중국의 군사행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또다른 독립변인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상관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아울러, 문화대혁명이라는 급진적 혁명 열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베트남전에 제한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은 혁명 이데올로기와 같은 관념변인은 그 설명력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대혁명으로 인한 대규모 군사 동원이 불가능했다면, 그것은 결국 “마오의 이상주의가 현실에 굴복한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Chen 1995, 386).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논문은 한국전쟁 시기부터 베트남전쟁 시기까지 중국의 대외적 군사행태를 중국이 직면했던 대소련 동맹딜레

다(alliance dilemma)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본 논문은 1950년 한국전 개입, 1958년 진먼·마쭈도 포격, 1962년 중인전쟁, 그리고 1965년 베트남전 개입을 분석할 것이다.

동 시기 중국의 군사행태 변화를 대소련 동맹딜레마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는 것은 구(Khoo 2011)의 시도와 같이 1950년 후반 이후 악화된 중소관계를 통해 중국의 군사행태 변화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 비해 본 논문은 중소관계의 악화로 인한 중국의 군사행태 변화를 보다 미시적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의 핵심 주장은 한국전쟁부터 베트남전쟁까지 중국의 군사 행태는 동맹국 소련으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거나 반대로 소련에 의해 분쟁에 결박당하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투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선, 2장에서는 동맹안보 딜레마 이론을 통해 중소간 동맹게임의 구조를 설명한다. 이를 기반으로 3장에서는 한국전쟁부터 베트남전쟁까지 중국의 군사 행태를 분석할 것이다.

II. 동맹간 결박-방기 딜레마

윌츠(Waltz 1979, 88-92)가 지적하듯, 무정부상태인 국제정치 상황에서 국가의 최고목표가 '생존'이라면, 적대국가와 동맹국가와의 관계는 동시에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통해 적대국가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차단하려 할 것이며, 아울러 그러한 세력균형의 핵심적 방법으로 다른 국가와의 동맹관계를 수립하려고 할 것이다. 결국, 스나이더(Snyder 1984, 468-471)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무정부적 국제정치에서 생존을 추구하는 국가는 '적대(adversary)게임'과 '동맹(allinace)게임'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이 2가지 게임중 동맹게임은 적대게임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며 아울러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동맹게임이 보다 중요한 이유는 핵무기 시대의 도래와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로 인해 (잠재적) 적대국가간 전쟁 가능성이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2차 대전 이후 핵무기를 통한 '상호확증파괴' 논리는 강대국들간 전쟁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약화시켰으며(Waltz 1981), 아울러 전후 자본주의 체제의 확산에 따라 국가 상호간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economicus)' 적 국제관계의 출현 역시 국제정치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Foucault 2008, 52-60).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경쟁하는 강대국들간의 제로섬적 적대게임에 비해 그들 상호간 혹은 그들과 하위 파트너들간의 동맹게임이 보다 중요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강대국들은 상호 결탁을 통해 안정적 국제정치를 유지하려 하며, 그에 기초해 각각의 동맹국들을 관리하려는 합리적 동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후 미소 냉전은 1945년 2월 수립된 얄타체제에 기반해 미소 양국이 국제정치를 분할하고 각자의 세력권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이삼성 1991, 94-103).

한편, 동맹게임이 적대게임에 비해 보다 복잡한 것은 일반적으로 동맹국들은 상호간에 필연적으로 동맹딜레마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적대게임중인 국가들의 목표는 적대국이 가하는 위협을 차단하거나 보다 선제적으로 적대국을 제압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동맹국들은 상대국에 의한 '방기(abandonment)' 상황과 동시에 상대국에 의해 원치 않는 분쟁에 '결박(entrapment)' 당하는 상황을 모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¹⁾ 이러한 두가지 목표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동맹국들은

1) 'abandonment'는 연구자에 따라 '포기'나 '방기'로 번역되며, 'entrapment'는 '연루'나 '결박'으로 번역된다. 중국학계는 일반적으로 '광치(放棄)'와 '치엔리엔(牽

필연적으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다. 즉, 동맹 상대국으로부터 방기당하지 않기 위해 동맹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할수록 ‘원치 않는’ 분쟁에 결박당할 위험성은 그만큼 증가하며, 반대로 분쟁에 결박당하지 않으려고 회피할수록 동맹 상대국에 의해 방기당할 가능성은 커진다 (Snyder 1984, 466-468).

예를 들어, 중국은 동맹국 북한에 대해 전형적인 동맹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북한이 가지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 북중동맹의 붕괴(북한으로부터의 방기)를 방지해야할 목표가 있으며, 동시에 북한의 벼랑끝 전술이 초래할 수 있는 미국과의 분쟁에 결박되는 것 역시 방지해야 목표가 있는 것이다(박홍서 2006). 한국 역시 미국에 대해 동맹딜레마를 가진다. 한국은 미국에 의해 타이완 분쟁에 결박당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전술에 신중히 대처하거나 중국을 가상 타깃으로 하는 미사일 방어체제(MD) 참여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서정경 2005, 112-116). 동시에 한국은 이라크 파병 및 전시작전권 이양시기를 연기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의 방기 가능성 역시 차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김현 2007, 49/ 63-64).

한편, 동맹국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동맹딜레마 논리를 이용하여 동맹 상대국으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즉, 동맹중 일방이 동맹의무에 소극적이고 심지어 동맹관계를 방기하려 한다면, 타방은 제3국과의 분쟁을 조장해 동맹상대국을 결박시켜 방기 가능성을 감소시키려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탈냉전기 북한의 반복되는 벼랑끝 전술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켜 결과적으로 동맹국 중국으로부터 방기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라 볼 수 있다

連)으로 번역한다. 본 논문은 각각을 ‘방기’와 ‘결박’으로 통일할 것이다. 특히, entrapment의 경우 연루보다는 결박으로 번역하는 것이 상대를 분쟁에 얽매려는 행위자의 적극성을 보다 강하게 드러내 준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Park 2008). 동일한 맥락에서 냉전시기 북한의 1968년 푸에블로 납포 및 1969년 EC-121 미 정찰기 격추도 한반도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중국에게 동맹의무를 강요한 “계산된 모험주의”라 할 수 있는 것이다(최명해 2009, 251-273).

이와 같다면, 냉전시기 중국의 대소련 동맹관계는 대미관계에 비해 보다 복잡할 수밖에 없다. 디트머(Dittmer 1981)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냉전시기 국제정치는 미국, 소련, 그리고 중국사이의 “전략적 삼각관계 (strategic triangle)”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속에서 중국은 1950년 2월 중소동맹체결부터 1960년대 베트남 전쟁기까지 소련과 동맹게임을 수행하고, 미국과는 적대게임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1950년대 후반 이후 점증하는 중소갈등과 급기야 1969년 발생한 무력 충돌로 인해 이후 중소관계가 오히려 적대게임을의 양상을 띠고 중미관계가 유사(quasi) 동맹게임을의 양상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Kissinger 2011, 275-293). 그러나 1965년 베트남전 발발 당시 중소 동맹이 근본적으로 붕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결과를 떠나 중소 양국이 베트남에 대한 군사지원 문제를 긴밀히 협의했다는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위협이 여전히 공고한 상황속에서 대소 동맹관계의 근본적 단절을 수용할 수 없었으며, 소련으로서도 미소간의 안정적인 알타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하위 동맹국 중국을 적절히 관리해야할 합리적 동인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소 양국은 한국전쟁기부터 베트남전쟁기까지 상호간에 동맹딜레마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소련이 조장한 원치 않는 분쟁에 결박되는 상황을 회피하고, 동시에 소련에 의한 방기 상황 역시 차단해야 할 합리적 동인이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동맹간 결박-방기 가능성이 역관계라면, 중국은 소련에 의한 방기가능성을 낮추고 동맹의무(안보공약)를 강요하기 위해 제3국과의 분쟁상황을 조성해 소련을 결박

시키려는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소련 역시 중국에 대해 동일한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전쟁기 소련에게는 중국을 미국과의 분쟁에 결박시켜 자국의 세력권에 결박시키려는 합리적 동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론 가능하다. 반면, 1958년 타이완 해협 위기는 중국이 소련의 대미 평화공존 정책을 견제하고 소련의 대중국 동맹의무를 강요하기 위해 고조시켰으며, 1962년 중인분쟁 역시 이와 유사한 전략적 사고에 따라 수행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한편, 1965년 베트남전에 대한 중국의 제한적 개입은 베트남전에 중국을 결박시키려는 소련의 전략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분석은 중소간 동맹딜레마가 한국전쟁이후 중국의 대외적 군사 행태를 설명하는 유일한 변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 보다 중소간 동맹딜레마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동 사례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 동시기 미국과의 근본적인 관계개선이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중국의 대외 정책결정에 있어 대미관계가 일종의 '상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의 대소련 동맹관계의 변화가 중국의 구체적 군사행태를 설명하는 보다 적실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방법론적으로도 이러한 설명은 과학적 엄밀성을 제고시킨다. 동일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설명은 가장 '간결한(simple)' 설명이라는 과학적 준칙을 수용한다면, 중소 동맹딜레마 변인을 통한 동 사례들의 설명은 다양한 변인들(국내정치, 이데올로기, 대미관계 등)을 추가하지 않고도 전체 사례들을 보다 간결하게 설명해 낼 수 있는 강점이 있는 것이다.²⁾

2) 반증주의(falsificationism)를 주창한 포퍼(Popper 1961, 140-142)에 따르면, 독립 변인의 수가 더 적은 간결한 이론일수록 반증될 가능성이 보다 큰 대담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적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모든 국가는 힘에 따라 행동한다'는 명제는 '모든 국가는 힘과 이념에 따라 행동한다'는

Ⅲ. 중국의 대소련 동맹 딜레마와 군사 행태

1. 중국의 ‘전면적인’ 한국전 개입: 미중 접근과 소련의 대중국 결박 성공

1950년 10월 19일 중국 인민지원군은 압록강을 도하해 한국전쟁에 전면적 개입을 감행하였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참전은 연합군의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과 이후 서울 수복, 그리고 10월 7일 38선 월경 및 북진이라는 안보위협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Gurtov and Hwang 1980, 61; 박흥서 2008, 175).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이 중국의 참전이 계획적이고 능동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참전결정 직전까지도 중국지도부내에서 참전을 반대하는 의견이 강하게 표출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1949년 10월 국가수립이후 국내적으로 산적한 국민당 잔존세력의 일소 및 경제발전의 필요성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소련의 공군력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도 인민지원군의 압록강 도하 직전까지 중국의 참전은 유동적이었다. 즉, 10월 5일 정치국 확대 회의에서 참전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10월 12일에서 17일 까지 보류와 재결정을 반복하면서 압록강 도하 하루전인 18일에야 최종적으로 참전을 결정했던 것이다(주지안룡 2005, 237-357).

애초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전쟁계획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1950년 5월 김일성의 베이징 방문시 마오는 타이완 해방이 우선적 목표였으나, 김일성이 이미 스탈린의 동의를 얻어낸 이상 전쟁계획을 지지한다는 점을 밝혔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 역시 미국이 38도선을 월경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결국 이것은 북한의 ‘조국해

명제보다 반증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우월한’ 설명이다.

방전쟁'에 대한 중국의 찬성이 “내키지 않는 적극적 동의”이거나 “형식적인 동의”였음을 시사한다. 중국이 한반도 전쟁을 동의한 이후에도 여전히 타이완 침공 준비에 전력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沈志華 1999, 113; 박명립 1996, 250-251; 左鳳榮 2010, 116).

중국의 참전이 능동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참전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던 요인은 무엇인가? 미국의 북진에 따른 안보위협이라는 직접적 요인이외에 참전 결정과정에서 고려되었던 핵심적 대상은 무엇인가? 상술한 바와 같이,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한 국가는 생존을 위해 적대게임과 동맹게임을 동시에 수행한다. 한국전쟁기 중국 역시 미국과의 적대게임과 소련과의 동맹게임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한국전 개입과정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소 동맹게임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참전결정은 소련의 참전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1950년 2월 수립된 소련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향후 국가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타이완 해방을 위해서는 향후 소련의 정치·군사적 지원이 필수적인 중국으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던 것이다(박명립 1996, 222-235). 실제로 중국의 한국전 참전은 이후 중소관계를 강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마오 본인이 인정하듯, 참전을 통해 자신이 당시 유럽에서 대소 독자노선을 추구하고 있던 유고슬라비아의 티토(Josip Broz Tito)가 아님을 스탈린에게 입증시키고 대규모 지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毛澤東 1962; Goncharov 외 1993, 200-201).

동맹이론적인 맥락에서 중국의 참전은 분쟁에 스스로를 결박시켜 동맹국 소련으로부터의 방기가능성을 줄이고 동맹의무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의 참전이 애초부터 능동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소련으로부터의 지원 확보라는 목적은 참전이

이미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의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참전은 ‘자발적인’ 결박이라기보다는 ‘강요된’ 결박인 것이다.

소련은 왜 한국전쟁에 중국을 결박하려고 했던 것인가? 1950년 2월 14일 체결된 중소우호조약 전후로 발생한 미중소 삼각관계속에서 동맹 이론을 통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소련은 애초 중소동맹 체결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마오는 1949년 12월 16일 모스크바에 도착한 이후 2달여 동안 스탈린에게 중소동맹 체결을 강력히 희망하였다. 그럼에도 스탈린은 마오와의 회동조차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1945년 8월 장개석 정권과 맺은 조약을 대체할 새로운 조약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소련은 기존 조약에 포함된 만주 등에 대한 이권을 계속 보유해야할 필요가 있었으며, 아울러 마오가 계획중인 대만침공에 결박당해 알타조약의 당사국인 미국과 대결하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Goncharov 외 1993, 85-93; Kissinger 2011, 115-117).

그러나, 소련의 태도는 1950년 1월에 접어들면서 적극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소련은 새로운 동맹조약 체결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중국의 타이완 통일계획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했으며, 심지어 홍콩점령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2월 14일 중소간 새로운 우호조약이 체결되기에 이른다. 소련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중국과 미국의 접근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대응이라 볼 수 있다. 미 대통령 트루만(Harry Truman)은 1월 5일 타이완은 중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1월 12일 국무장관 애치슨(Dean Acheson)은 동아시아의 미국 방어선에서 타이완을 제외한다고 공표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타이완 침공에 대해 미국은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으로 마오정권에 대한 미국의 유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신생중국을 ‘아시아의 티토정권’으로 변화시켜 소련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였던 것이다. 따라서, 소련으로서는

마오정권이 희망하는 새로운 중소동맹조약을 통해 중미관계 개선을 차단해야할 합리적 필요성이 있었다(Christensen 1996, 103-113; Goncharov 외 1993, 98-103/ 143; Kissinger 2011, 118-122; 卞江·李少丹 2006, 96-97).

이러한 맥락에서 1950년 4월 김일성의 전쟁계획에 동의한 스탈린의 전략적 의도를 추론할 수 있다. 애초 스탈린은 김일성의 전쟁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다. 해제된 구소련 비밀문서에 따르면, 스탈린은 1949년 3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김일성에게 그의 ‘민족해방전쟁’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그 실행에 대해서는 군사적 준비의 미비, 미국의 개입 가능성, 그리고 미국과의 38선 분할협정 등을 이유로 단호히 반대하였다(서울신문 1995.5.15. 4면).

그러나 소련의 입장은 중소동맹조약이 대략적으로 합의되는 1월말 이후 바뀌기 시작한다. 스탈린은 애치슨 선언으로 인한 미군의 개입 가능성이 약화되고, 중국의 혁명 승리로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보다 진력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김일성의 전쟁계획을 승인하였다(左鳳榮 2010, 114-115). 새로운 중소동맹조약이 가시화된 이상 중국을 한반도 분쟁에 결박시켜 미중 상호간 접근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소련은 한반도 전쟁시 미국과 싸우지 않을 것이며, 구체적 전쟁계획에 대해서는 마오쩌둥의 동의가 필수적임을 지적하였다. 특히, 5월 중국에 보낸 전보에서 스탈린은 “중국 동지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쟁 결정은 유보”될 것이라며 중국측에 전쟁결정권을 전가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전쟁에 따른 자국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도 중국을 중소동맹관계에 결박시키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Goncharov 외 1993, 143-147; 박명립 1996, 149/ 155-157; Kissinger 2011, 128-129).

아울러 소련으로서는 마오 정권과 김일성 정권이 각각 타이완 침공과 남한 침공을 두고 경쟁하고 있는 상황(Goncharov 외 1993, 149)에서

북한의 남침계획이 먼저 실행되는 것을 선호했다고 볼 수 있다.³⁾ 중소 동맹체결 과정속에서 스탈린은 마오에게 타이완 해방은 시급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다(박명림 1996, 234). 만약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선행된다면, 소련에게는 중국을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할 동맹의무가 생기는 반면 북한의 전쟁계획이 먼저 실행된다면 중국을 결박시켜 자국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즉, 소련으로서는 중국에 의해 타이완 전쟁에 결박당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전쟁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중국을 한반도 전쟁에 결박시키려는 소련의 의도는 미군이 38선을 월경해 북진하는 10월초 보다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자국의 군사개입의 선결 조건으로 소련의 공군력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소련은 이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중국의 군사개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0월 10일 저우언라이의 회담에서 스탈린은 소련의 군사개입은 미국과의 3차 세계대전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며, 반대로 만약 중국이 참전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동북 지역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 심지어 스탈린은 북한정권이 패주할 경우 중국의 동북지역에 망명정부가 수립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중국의 참전을 압박하기도 하였다(Goncharov 외 1993, 189-195). 결국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북진이라는 직접적 안보 위협속에서 향후 지원을 대가로 한 소련의 참전 요구에 직면하자 10월 19일 전면적인 군사개입을 감행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소련의 지원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국 세력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소련군이 동북지역에 진주할 가능성 역시

3) 마오는 5월 김일성과의 회담에서, “우리는 본디부터 타이완의 해방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조선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했다. 조선의 통일 문제가 모스크바에서 승인 받은 이상, 조선의 통일을 먼저 실현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발언하였다(주지안룡 2005, 65).

우려했을 수도 있다(沈之華 2001, 262). 모로우(Morrow 1991)에 따르면, 동맹간에는 ‘자율성(autonomy)’과 ‘안보(security)’를 둘러싸고도 딜레마가 존재한다. 동맹 상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려 하면 할수록 상대방이 제공하는 안보 수준은 약화되고 그 역관계도 성립하는 것이다. 이와 같다면, 중국의 한국전 참전은 향후 소련으로부터의 자율성과 안보지원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로도 볼 수 있다. 동북지방으로의 소련군의 진주는 안보를 대가로 중국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한국전 참전을 통해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었던 것이다.

2. 타이완 해협위기 및 중인전쟁: 미소간 평화공존과 중국의 대소련 결박 시도

1958년 8월 23일 중국은 푸젠성에 인접한 진먼·마쭈도(金門·馬祖島)에 대한 기습포격을 개시하였다. 포격 직후 미국은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타이완 방어 의지를 피력하고 이에 대해 소련이 강력히 경고하면서 타이완해협 위기는 극적으로 심화되었다. 그러나 9월 15일 바르샤바에서 미중 회담이 개최됨으로써 위기국면은 10월 들어 점차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선제 포격을 진먼·마쭈도에 주둔한 국민당군의 지속적인 도발행위에 대한 응징이라고 정당화하였다(『人民日報』 1958.8.25 1版). 그러나 중국이 이미 7월부터 당시 중동분쟁에 개입한 미국을 비판하면서 타이완 해협의 위기를 점차 고조시켰다는 사실은 포격이 단순히 국민당군의 도발에 대한 대응이 아님을 반증한다. 중국은 이미 “장제스정권에 대한 공격을 통해 미제국주의를 봉쇄함으로써 아랍인민들을 지원” 하겠다는 의사를 공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중국군이 진먼·마쭈

도를 탈취하기보다 오히려 동 섬들로부터 국민당군의 철수를 반대했다는 사실은 포격이 단순히 양안간의 제로섬 게임이 아님을 시사한다. 마오는 미국의 권유대로 동 섬으로부터 국민당군이 철수한다면, 양안간의 접촉 통로가 단절돼 결과적으로 미국에 의한 ‘두개의 중국’ 정책이 강화될 것을 우려하였다(Luthi 2008, 97; 廖心文 1994, 35).⁴⁾

더욱이, 중국의 포격이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려는 의도에 기인한다고도 볼 수 없다. 중국의 기습포격은 오히려 미국으로 하여금 강력한 타이완 방어 의지를 재확인하게 할 것이라는 합리적 예상이 애초 가능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1954년 8월 1차 타이완해협 위기사 강력한 방어의지를 표명했으며, 그 결과 1954년 11월 장제스 정권과 방위조약을 체결하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1958년 타이완해협 위기사에도 미국은 타이완 방어의지를 피력하면서 싸먼 인근 공근기지에 대한 진술핵 공격까지도 고려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 포격을 진먼·마쭈도의 국민당군에 한정하고 위기국면을 이용해 미국과의 대사급외교를 복원하였다는 사실은 진먼·마쭈도 포격의 목적이 동 지역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 전체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Kissinger 2011, 155; Christensen 1996, 225-227).

이와 같이 진먼·마쭈도 포격의 주요 목적이 미국 및 장제스 정권과의 적대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소간 동맹게임은 1958년 타이완 해협 위기를 보다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한다. 즉, 중국은 타이완 해협의 긴장을 통해 동맹국 소련을 결박함으로써 동맹의무를 강요하는 전략적 행태를 구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사고는 미소관계의 개선과 그에 따른 중국의

4) 1972년 닉슨과의 회담에서 저우언라이는 “우리는 그들에게 포격을 통해 후퇴하지 말것을 강요했다... 우리는 홀수날에만 포격하였는데, 국민당은 우리의 의도를 간과하고 후퇴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키신저는 이를 양안 정권간의 “암묵적 거래(tacit bargaining)”로 설명한다. Kissinger 2011, 178-179.

‘소외’라는 국제적 상황변화에 기인한다. 1953년 스탈린 사후 집권한 흐루쇼프 정권은 1956년 20차 전당대회를 통해 동서진영간 ‘평화공존(peaceful existence)’이 가능하다고 설파하면서 미국과 핵비확산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등 안정적인 대미관계를 정립하기 시작하였다. 군사적으로 소련은 대륙간 탄도탄의 실전 배치에 성공함으로써 미국과의 핵전쟁에 따른 ‘공멸’을 방지해야할 합리적 동인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미소관계의 증진을 국제정치에 대한 미국과 소련의 ‘공동통치(condominium)’ 기도로 인식함으로써 자국의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소련은 1958년 3월 핵무기 견본을 제공한다는 이전의 약속을 순연시키고, 반면 중소연합함대의 창설이라든지 소련잠수함의 무선기지국을 중국영토내에 설치할 것을 중국에 강요함으로써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독자적 군사행동을 통제(결박)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1958년 7월 31일 방중한 흐루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이러한 소련의 요구가 중국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강력히 비판하기도 하였다(정세현 1984, 153-156/ 169-171; Luthi 2008, 92-94; Christensen 1996, 206-210).

진먼·마쭈도에 대한 기습포격이 흐루쇼프와의 정상회담 직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중국의 전략적 의도가 어떠한 형태로는 대소련 동맹관계와 연관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중국으로서는 소련의 대미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타이완해협을 긴장을 고조시켜 소련을 동맹관계에 결박시키는 것이 보다 합리적 선택이었을 것이다. 마오는 타이완해협 위기상황에서 소련 외상 그로미코(Andrei A. Gromyko)에게 미국이 반격을 할 경우 중국군은 내지로 미군을 유인해 소련의 군사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대담한 계획을 전달하였다. 이것은 타이완해협 위기를 이용해 소련을 결박시키려는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Luthi 2008, 98-99; Taubman 1988).

소련은 이러한 중국의 도발적 행태를 결코 수용할 수 없었다. 1954년 1차 타이완해협위기와 같이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했다는 사실은 최악의 경우 소련이 타이완 문제로 인해 미국과의 핵전쟁에 결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소련으로서는 중국의 대소련 결박 의도를 차단해야 할 합리적 동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소련은 1959년 6월 중국과의 핵무기 견본 제공에 관한 합의를 파기하고, 9월에는 흐루쇼프-아이젠하워 정상회담을 통해 미소간 평화공존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1960년에는 중국에 파견된 핵과학기술자들을 전면 철수시키기도 하였다(정세현 1984, 171-173; 韓志强 2012, 37). 이러한 소련의 행태는 중국을 의도적으로 방기함으로써 중국에 의한 결박가능성을 감소시키려는 합리적 사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타이완해협위기 이후 중소관계가 급속히 경색되기 시작됐던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진개라 할 수 있다. 중국은 1960년 4월 20일 “레닌주의만세(列寧主義萬歲)”제목의 사설을 발표해 서방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평화공존 정책은 제국주의 본연의 호전성으로 인해 실현불가능하며 따라서 평화공존정책은 전세계의 혁명역량을 약화시키는 수정주의적 태도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던 것이다(정세현 1984, 174; 『人民日報』 1960.4.20. 1版).

1962년 발발한 중인전쟁 역시 이러한 중소 갈등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10월 20일 중국은 자국이 주장하는 히말라야 서쪽지역의 실질통제선(line of actual control)과 인도가 주장하는 동쪽지역의 맥마흔라인(McMahon Line)을 월경해 선제공격을 개시하였다. 이후 전투에서 중국군은 접경지역의 인도 영토로 진격하는데 성공하였으나, 11월 21일 일방적으로 휴전을 선언하고 애초 월경한 접경선 후방으로 후퇴하였다. 표면적으로 중국의 공격은 영국 및 미국의 지원하에 인도 네루 정권이 동 지역에 대해 감행한 ‘전진정책(forward policy)’을 견제하려는

군사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劉穎玮 1998, 38-41). 그러나 그 이면에는 타이완 해협위기와 유사하게 국지적 긴장을 조성해 소련의 동맹의무를 요구하려는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1959년 달라이라마의 인도망명과 이와 연계된 중인간 국경충돌상황에서 소련의 중립적 태도에 당황했던 중국지도부에게 중인전쟁을 통한 소련 결박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전쟁개시전 중국이 인도와의 전면적 무력충돌을 회피하고, 아울러 바르샤바 회담을 통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려 한 행태(Kissinger 2011, 187-189)는 전쟁의 목적이 적대게임이 아니라 대소 동맹게임의 맥락에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더욱이 중국의 전쟁개시 시점이 미소간 쿠바미사일 위기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은 중인전쟁의 목적이 대소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다 명확히 뒷받침한다. 10월 15일 미국은 소련의 쿠바 핵미사일 기지 건설 계획을 포착하고 쿠바 해역을 봉쇄함으로써 미소간 무력충돌가능성이 증폭되었다. 27일에는 미국의 U2 정찰기가 피격되면서 미소간 대치는 절정에 다다르게 되었다. 소련으로서는 미소 대치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형태로든 동맹국 중국의 지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중인전쟁 직전 동맹조약에 의거해 대중국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10월 28일 쿠바미사일위기가 종료됨과 동시에 소련의 태도가 중립적으로 돌변했다는 사실은 중인전쟁을 둘러싼 중소 양국의 전략적 행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Kissinger 2011, 190-192; Malhotra 2008; 李丹慧 2006, 60). 소련의 태도변화는 중인전쟁을 통해 소련을 결박시키려는 중국의 의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이 12월 15일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 “그들이 중인전쟁중 말로는 형제국이라 외치며 시종일관 중립적 자세로 인도의 후원자가 되었다”고 맹렬히 비난한 사실은 이를 반증한다(『人民日報』 1962.12.15. 1版).

3. 중국의 ‘제한적인’ 베트남전 개입: 소련의 대중국 결박 시도 실패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을 기화로 베트남전쟁이 본격화되었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한국전쟁시기와 분명한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중국은 1964년부터 1969년까지 베트남에 1억 8천만달러 상당을 지원하기도 했으나, 군사적으로는 전투병보다는 공병대와 대공포대 등 주로 후방 지원전력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1969년까지 베트남에 동원된 32만여명의 중국군중 인명피해는 사망자 1,100과 부상자 4,300명이었는데(Khoo 2011, 29), 이는 수십만명에 달하는 한국전쟁시기의 사상자수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협소한’ 수준이었다.

중국의 대응변화는 미 지상군이 17도선을 월경해 북베트남으로 진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기와 달리 중국 영토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 위협이 감소했던 것이다. 중국은 베트남 전 초기부터 간접적인 통로를 이용해 베트남에서 미국과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1965년 1월 에드가 스노우와의 회견에서 마오는 출병계획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1965년 4월 저우언라이는 미국 방문 예정이었던 파키스탄의 대통령 아유브 칸(Mohammad Ayub Khan)에게, 그리고 5월 주중 영국 대사 대리 홉슨(Donald C. Hopson)에게 미국과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던 것이다. 미국 역시 바르샤바 회담 등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적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북베트남으로의 대규모 지상군 투입을 자제하였다. 미중간에는 한국전쟁과 같은 대규모 충돌을 차단해야한다는 암묵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이다(李丹慧 2001, 435-445). 이러한 중국의 입장은 1965년 4월 등장한 베트남전 전쟁구호가 “원월항미(援越抗美)”라는 사실로부터도 반증된다. 이것을 한국전 구호인 “항미원조(抗美援朝)”와 비교한

다면, 미국과의 직접적 대결보다는 베트남이 전쟁의 주체이며 중국은 조력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난다(李丹慧 2000, 47).

그렇다면, 미중간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은 무엇인가? 즉, 제로섬적 적대게임에서 중국은 왜 미국과 충돌을 방지하려는 행태를 보였는가? 그것을 단순히 미중 양자관계의 개선이라는 맥락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미중관계의 개선은 1969년 1월 닉슨 행정부의 등장 이후에야 가시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전이 본격화된 1965년에 존슨 행정부는 여전히 소련보다 중국을 위협적인 국가로 간주했으며, 중국 역시 문화대혁명 전야의 급진적인 정치상황속에서 “제국주의” 미국에 대한 전향적 접근을 할 수 없었던 것이다(Kissinger 2011, 205-206). 따라서, 베트남전 개입에 대한 중국의 위협회피적 행태는 중소간 동맹개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다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1950년대 후반 경색되기 시작한 중소관계는 1962년 중인전쟁에 대해 소련이 중립적 행태를 보이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마오의 대약진 운동 실패 이후 자신의 과오에 대해 제기된 당내 비판을 대외적인 소련의 위협과 연결시키는 소위 “내우외환(內憂外患)”적 사고에 기반해 소련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牛軍 2001, 60-61; 李丹慧 2006, 55). 이에 따라 중국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를 둘러싸고 소련에 대해 일련의 공개적 비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중국은 1964년 7월 14일 인민일보 사설을 통해 흐루쇼프의 실명을 거론하며 “가짜공산주의(假共產主義)”라고 맹렬히 비판하기까지 하였다(『人民日報』 1964.7.14 1版).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1965년 대베트남 군사개입의 결정과정 역시 중소갈등과 어떠한 형태로든 연결될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중국의 군사개입은 항상 소련의 입장이 무엇이나에 따라 그와 상반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중국은 애초 미국에 대항해 베트남에 대한 전면적 군사지

원을 약속하였다. 1964년 6월 24일 마오는 북베트남의 참모총장인 반 띠엔 중(Van Tien Dung)과의 회담에서 한국전쟁때와 같이 인민지원군 형태의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7월 저우언라이는 미국이 북베트남을 공격해 전쟁을 확대한다면 중국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를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토대로 통킹만 사건 이후 베트남전이 본격화되자 중국은 1965년 4월 베트남과 구체적인 군사지원 방식에 합의하고 6월 최초의 중국군이 베트남전에 참전하기 시작하였다(Luthi 2008, 306-307).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소련이 제시한 베트남 군사지원계획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드러내었다. 소련 수상 코시긴(Alexei Kosygin)은 1965년 2월 베이징을 방문해 베트남전 지원에 관한 ‘연합행동(united action)’ 차원의 국제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소련의 지원물자 수송에 협조해줄 것을 중국에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중국은 국제회의 개최에 반대하고, 중국의 영공을 통한 소련의 무기 수송을 거부한 것이다. 2월 19일 북베트남이 지대공무기의 원조를 요청하자 소련은 또 다시 중국 영공을 통한 신속한 물자지원을 중국에 제안하였다. 중국은 이에 대해서도 육상을 통한 물자수송에는 동의하였으나, 영공을 통한 물자수송에는 반대하였다. 중국은 소련이 지원무기 수송 계획에 대한 비밀을 누설시킴으로써 작전중 미국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거나, 소련이 지원계획을 이용해 중국의 영공을 통제함으로써 주권을 침해하려한다며 자국의 거부를 정당화하였다(Luthi 2008, 318-319; 李丹慧 2000, 55-56).

이후에도 중국은 베트남전 지원에 대한 소련의 협력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였다. 4월 소련은 지속적으로 중국 영토를 경유한 소련군의 수송, 중국내 공군기지 사용, 그리고 영공 통과권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중국은 이를 명확히 거부하면서 소련의 대중국 통제 의도를 비판하고 심지어 소련이 미국과 공모해 베트남 인민의 투쟁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고 비판하기도 하였다(Khoo 2011, 22-23; 『人民日報』 1965.11.11 1版).

소련의 지원계획에 대한 중국의 거부는 애초 중국이 베트남에 약속했던 전면적 지원과는 모순적인 것이었다. 소련은 북베트남이 필요로 하는 최신무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반면 중국은 베트남의 대소련 접근을 경고하면서 남베트남 인민해방전선의 혁명역량을 강조하는 ‘인민전쟁’ 방식의 베트남전 승리를 주장했던 것이다. 그 결과 소련-베트남 관계가 급속히 강화된 반면 중국-베트남 관계가 긴장되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상황전개였다. 1966년 3월 베트남노동당 서기 레 주언(Le Duan)이 방소중 “소련은 나의 제 2의 조국”이라고 발언한 이후 중국은 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삭감한다거나, 4월 레 주언과의 회담에서 덩샤오핑은 소련의 지원문제에 둘러싸고 베트남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Khoo 2011, 34-35).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입장에서는 소련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중국의 미온적 지원행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소련이 미국과의 공모를 통해 베트남 인민들의 투쟁을 억압한다는 중국의 주장은 오히려 전쟁 국면을 불리하게 만드는 행태로 인식되었다. 중국 지도부가 “소련과는 달리 베트남을 미국에 팔아먹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소련이 제안한 연합행동과 중국 영공을 통한 물자수송을 거부하고 베트남 인민들의 자생적 승리에 집착하는 행태는 베트남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Luthi 2008, 313/ 325-331; Khoo 2011, 35-36). 1979년 중-베트남 전쟁 직후 베트남은 “중국백서”를 통해 중국의 배신행위들을 열거하였다. 그 핵심은 베트남전쟁기 중국이 전쟁 승리에 필요한 물자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베트남 통일을 방해했다는 것으로 중국의 모순적 행동에 대한 베트남의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유인선 2013, 398/ 402).

그러나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모순적 행태는 소련에 의해

베트남전에 결박당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합리적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소련의 주장대로 베트남전 지원을 명분으로 소련이 중국의 영공과 중국내 공군기지를 사용하게 된다면, 중국의 자율성은 훼손되고 반면 중국내지로까지 전쟁이 확대될 위험성은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마오는 베트남 전쟁이 중국으로 확대된다면, 소련이 중소동맹 조약을 명분으로 “양자강 이북지역을 점령할 것이며, 그 결과 양자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군과 소련군이 대치할 것”이란 우려까지 했다(정세현 1984, 186). 1965년 2월 베트남전 지원문제에 관한 코시긴과의 회담에서 마오가 중국이 제3국으로부터 침공당할 경우 소련이 동맹국으로서 방어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 질의한 사실(Khoo 2011, 22)은 소련의 현실주의적 대중 정책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우려를 암시한다.

IV. 결 론

중국은 1949년 국가수립 이후 1970년대 초 미중관계 개선시기까지 한국전쟁, 타이완해협위기, 중인전쟁, 그리고 베트남전쟁이라는 안보위기 상황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들속에서 감행된 중국의 군사 행태는 표면적으로 미국을 적대국으로 상정하는 중미간 적대게임의 차원에서 발생하였다. 한국전쟁에 비해 베트남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은 미군의 대응 양태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미국이 1950년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한반도의 38선을 월경한 것과 달리 1965년에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17도선을 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미군의 북진에 대한 중국의 위협인식을 감소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동 사례들에서 중국의 구체적인 군사행동은 소련과의 동맹 게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때 보다 완전하게 분석될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초강대국 미국의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동맹국 소련으로부터의 지원확보는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소련의 희망대로 군사 행동을 감행함으로써 소련의 지원을 확보하려 한다든지, 반대로 소련을 분쟁에 결박시켜 소련의 동맹의무를 강요하려 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시 대규모 군사개입이 전자의 사례라면, 진먼·마쭈도 포격 및 대인도 전쟁 개시는 후자의 경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전쟁에 비해 베트남전에 대한 중국의 제한적 개입은 중소관계의 단절이라는 상황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중인전쟁 이후 중소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은 미국의 위협보다 소련의 위협을 더욱 우려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중국으로서는 소련이 한국전쟁과 같이 베트남전을 이용해 중국을 미국과 대립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과의 대사급 회담을 통해 상호간 무력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 하였다.

한편, 이러한 현실주의적 중소관계는 단순히 양국간의 문제를 넘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미관계의 변화는 중소관계 변화와 명확한 상관관계를 드러내었다. 중국의 한국전 참전으로 중소동맹이 극적으로 강화되고 중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변화되었다면, 1960년대 들어 본격화된 중소간 이념논쟁과 1969년 쩐바오다오(珍寶島) 무력충돌은 1970년대 초반 중미관계의 급진전을 가능케 한 구조적 요인이 되었다.

아울러, 중소관계의 부침은 중북관계 및 중-베트남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흥미로운 사실은 소련의 요구대로 한국전쟁에 결박된 중국은 그로 인해 이후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는 달리 중소관계의 악화와 이로 인한 중국의 제한적인 베트남전 지원은 이후 중-베트남 관계를 악화시키고 급기야 1979년 2월 중-베트남 전쟁을 초래케 하기도 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베트남은

베트남전쟁 시기 중국의 미온적 지원을 중-베트남 관계악화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중국의 대소련 동맹게임이 중-베트남 관계 악화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 중국은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최룡해 특사의 방중 이후 북한의 태도변화는 중국이 여전히 북한의 후견국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대소련 관계에 치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베트남 관계 악화라는 정치적 댓가를 치루어야 했던 역사적 경험이 현재 중국의 대북 정책에 투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즉, 중국으로서는 중미관계속에서 북한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할 합리적 동인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현. 2007. “한미동맹의 안보딜레마: 노무현 정부의 대미 갈등사례의 분석.” 『사회이론』 봄/여름.
- 박명립. 1996.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1』. 서울: 나남.
- 박홍서. 2006. “신현실주의 이론을 통한 중국의 대한반도 군사개입 연구: 1592년, 1627년, 1894년, 그리고 1950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 40집 1호.
- 『서울신문』. 1995.5.15. 4면. “김일성의 남침 책략(모스크바 새 정안:1).”
- 서경정. 2005.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중국을 둘러싼 한미동맹의 동맹딜레마.” 『국방연구』. 제 48권 2호.
- 沈之華. 2001.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결정에 대한 평가.” 박두복 편. 『한국전쟁과 중국』. 서울: 백산서당.
- 정세현. 1984. 『모택동의 국제정치사상』. 서울: 형성사.
- 유인선. 2012.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서울: 창비.
- 李丹慧. 2001. “38선과 17도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중·미 정보소통 비교 연구.” 박두복 편. 『한국전쟁과 중국』. 서울: 백산서당.
- 이삼성. 1991. “냉전체제의 본질과 제2차냉전의 발전과 붕괴.” 『현대세계체제의 재편과 제3세계』.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주지안룡 씀. 서각수 옮김. 2005. 『모택동은 왜 한국전쟁에 개입했을까』. 서울: 역사넷.
- 최명혜. 2009. 『중국 북한 동맹관계: 불편한 동거의 역사』. 서울: 오름.
- Chen Jian. 1995. “China’s Involvement in the Vietnam War, 1964-69.” *The China Quarterly*. No. 142.
- Christensen, Thomas J. 1996. *Useful Adversaries: Grand Strategy, Domestic Mobilization, and Sino-American Conflict, 1947-195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ittmer, Lowell. 1981.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 Analysis.” *World Politics*. Vol. 33, No. 4.
- Eugene Register-Guard*, July 30, 1979, “1000 Chinese troops died in Vietnam war.”
[http://news.google.com/newspapers?nid=1310&dat=19790730&id=-RRWAAAAIBA](http://news.google.com/newspapers?nid=1310&dat=19790730&id=-RRWAAAAIBA&sjid=J-IDAAAAIBAJ&pg=4476,8743774)
J&sjid=J-IDAAAAIBAJ&pg=4476,8743774 <검색일: 2013.6.21>
- Foucault, Michel. 2008. *The Birth of Biopolitic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Goncharov, Sergei N., John W. Lewis, and Xue Litai. 1993.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urtov, Melvin and Byong-Moo Hwang. 1980. *China under Threat: The Politics of Strategy and Diplom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Khoo, Nicholas. 2011. *Collateral Damage: Sino-Soviet Rivalry and the Termination of the Sino-Vietnamese Allian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issinger, Henry. 2011. *On China*. New York: The Penguin Press.
- Luthi, Lorenz M. 2008. *The Sino-Soviet Spli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lhotra, Inder. 2008. “Ghosts of black November.” *The Indian Express* December 5, 2008 <http://www.indianexpress.com/news/ghosts-of-black-november/3942740>
<검색일: 2013.6.25>
- Morrow, James D. 1991.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gat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 Park, Hongseo. 2008. “How Not to Be Abandoned by Beijing: North Korea’s Brinkmanship toward China.” A paper presented in the Yonsei-Renmin Workshop on the Rise of China and Power Transition at Renmin University, May 11, 2008.
- Popper, Karl. 1961.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New York: Science Editions, Inc.

- Snyder, Glenn H. 1984.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36:4 (July). 461-495.
- Taubman, Philip. 1988. "Gromyko Says Mao Wanted Soviet A-Bomb Used on G.I.'s." *The New York Times*. February 22, 1988.
<http://www.nytimes.com/1988/02/22/world/gromyko-says-mao-wanted-soviet-a-bomb-used-on-gi-s.html?pagewanted=all&src=pm> <검색일: 2013.6.25>
- Waltz, Kenneth.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 _____. 1981.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More May Be Better." *Adelphi Papers*, Number 171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1981).
- 韓志強 2012. "第二次台灣海峽危機中的蘇聯和中國" 『學理論』. 第27期
- 李丹慧 2000. "中蘇在援越抗美問題上的沖突與矛盾(1965-1972)(上)." 『當代中國史研究』. 第7卷 第4期
- _____. 2006. "走向分裂: 從暗中斗爭到公開論戰-1960年代中蘇關係研究之二." 『史學集刊』. 第6期
- 廖心文. 1994. "1958年毛澤東決策炮擊金門的歷史考察." 『党的文獻』. 第1期
- 劉頤玮. 1998. "中印邊境戰爭起因剖析." 『軍事歷史』. 第5期
- 毛澤東 1962. 毛澤東在八屆十中全會上的講話, 一九六二年九月二十四日上午于懷仁堂
http://club.china.com/data/thread/1015/2727/03/62/5_1.html <검색일: 2013.6.25>
- 牛軍. 2001. "毛澤東與中蘇同盟破裂的緣起(1957-1959)." 『國際政治研究』. 第2期
- 『人民日報』1958.8.25. 1版 "嚴懲賣國求榮的罪惡軍隊 我炮轟金門重創解綽賊軍 美機不斷侵犯我領空并威脅各國商船"
- 『人民日報』1960.4.20. 1版 "列寧主義萬歲—紀念列寧誕生九十周年"
- 『人民日報』1962.12.15. 1版 "全世界無產者聯合起來 反對我們的共同敵人"
- 『人民日報』1964.7.14. 1版 "關於赫魯曉夫的假共產主義及其在世界歷史上的教訓 九評蘇共中央的公開信(之一)"

『人民日報』1965.11.11. 1版. “駁蘇共新命領導的所謂聯合行動.”

沈之華. 1999. 『中蘇同盟與朝鮮戰爭研究』.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叶江·李少丹. 2006. “試論中蘇同盟建立前後美國對華政策的演變(1949-1950年).”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35卷 第5期

章百家. 2005. “抗美援朝與‘援越抗美’-中國如何應對朝鮮戰爭和越南戰爭.” 『世界經濟與政治』. 第3期

周恩來. 1950. “抗美援朝保衛和平.” 『周恩來選集』下.

<http://cpc.people.com.cn/GB/69112/75843/75874/75994/5183860.html> <검색일: 2013.6.25>

左鳳榮. 2010. “斯大林最後同意打朝鮮戰爭的原因.” 『俄羅斯研究』. 第4期

Abstract

China's Alliance Dilemma toward the Soviet Union and its Military Behaviors during the Cold War

Park, Hong Seo

Research Professor, Dongduk Women's University

hongseo@hanmail.net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China's external military interventions from the Korean War in 1950 to the Vietnam war in 1965 with a perspective of China's alliance dilemma toward the Soviet Union. During the China's military involvements, Beijing implemented two external games; one is an adversary game with Washington, the other is an alliance game with Moscow. The latter can be said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former in that China's national security could be seriously endangered without Soviet's assistance during the adversary game with the United States. In this respect, it seems clear that Beijing elaborated circumstances by which to urge Moscow to commit themselves to the Sino-Soviet alliance. Theoretically, allies have an dilemma between entrapment and abandonment toward each other. From this, it can be logically inferred that Beijing decided to be entrapped into the Korean War in order to secure Moscow's assistance. In contrast, China's bombardment to Jinmen · Mazu island in 1958 and the war against India in 1962 can be analyzed as Beijing's attempt to entrap Moscow for assistance. Meanwhile, Beijing's refusal of Moscows' assistance

plan in the Vietnam War was intended to avoid being entrapped into the war as Moscow expected.

Key Words: The Sino-Soviet alliance, The Sino-US relations, Alliance dilemma, China's military interventions, The Korean War, Taiwan Strait Crisis, The Sino-Indian War, The Vietnam War

투 고 일: 2013년 6월 30일

심사완료일: 2013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13년 8월 2일